

색차 채널을 위한 적응형 다중변환기술 성능분석

박지윤, 전병우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jiyoopark, bjeon }@skku.edu

Analysis of Adaptive Multiple Transform in Chroma Channel

Jeeyoon Park and Byeungwoo Jeon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요약

최근 UHD 컨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압축효율을 갖는 부호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 비디오 코덱을 위한 국제표준화 노력이 JVET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응형 다중변환 기술을 휘도 채널에 적용하는 것뿐 만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 내/간 블록 모두에서 색차채널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그 효율 향상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이 기존 방법 대비 BDBR 측면에서 Y(0.03%), U(-1.40%), V(-0.96%)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2013년 HEVC 국제표준화를 2013년 완료 후 [1], 다시 HEVC 대비 2 배의 압축률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Future Video Coding; 이하 FVC) 표준화가 ISO/IEC MPEG (JTC1/SC29/WG11)과 ITU-T VCEG (Q6/16)의 공동 비디오 부호화 팀 (Joint Video Exploration Team; 이하 JVET) 주관으로 진행중이다. 한편 JVET의 공동 실험을 위하여, 부호화 효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비디오 부호화 기술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SW로 집약한 Joint Exploration Model (JEM)이 개발되었는데, 최신버전인 JEM7.2 은 YCbCr 4:2:0 이외의 컬러 포맷과 10bit 이상의 bit depth를 지원한다. 또한, JEM7.2에는 적응형 다중변환 (Adaptive multi core transform, AMT) 기술이 추가되었는데, 율-왜곡(RDO: Rate Distortion Optimization)과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호화 시간이 요구됨으로, 시간 복잡성 및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화면 내/간 예측 모두 휘도 채널에만 적용되고 있다. 즉, 색차 채널에는 HEVC와 같은 고정된 변환이 사용하고 있다[1].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에서는 JEM3.0 버전에서 기존에 휘도 블록에만 적용되었던 AMT를 색차신호 변환 블록에 추가 신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제안방법에서는 화면 내 예측블록의 색차신호에 대한 AMT는 고려하지 않고 화면 간 예측블록의 경우에만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휘도 성분에 적용된 AMT 변환을 JEM7.2 버전에서 화면 내/간 예측 모두 색차신호에도 적용할 경우 화면 내/간 예측블록에서 색차채널 코딩 효율성 향상여부를 분석한다.

2. 적응형 다중변환

적응형 다중 변환은 차세대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의 표준화를 위해 진행되어온 JVET 회의에서 채택된 방법으로, 휘도성분의 코딩효율성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1 차 변환과정에서 DCT-II 및 4×4 DST-VII 만 사용하던 HEVC 와는 달리, DST-VII, DCT-VIII, DST-I 및 DCT-V의 새로운 변환방식이 추가되어, 화면 내/간 예측모드에 따라 특성화된 최적의 변환을 찾아 잔차신호 부호화에 사용된다. AMT 가 적용되는 CU 내의 휘도 채널 코딩블록(Coding Block: CB)의 경우 AMT 신호 플래그가 추가되어 사용할 수평 및 수직변환 조합 집합을 지시한다. 또한, 이 정해진 조합 내에서 율-왜곡(RDO)과정을 통해 특정한 최적의 수평 및 수직변환을 결정한다. 화면 내 잔차신호 부호화에 있어서, 화면 내 예측 모드별로 상이한 잔차신호 통계로 인해, 예측모드 별로 다른 변환 후보가 사용된다. 그러나 HEVC 표준에서 율-왜곡(RDO)과정은 좋은 압축 성능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많은 부호화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신버전인 JEM7.2에서는 화면 내/간 휘도 블록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3. 실험방법 및 분석

JEM에서 색차 신호는 HEVC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5개 화면 내 예측 모드와 채널 간 중복성(Redundancy)을 줄이기 위한 CCLM (cross-component linear model) 예측 모드 6개, 즉, 총 11개의 화면 내 예측 모드를 가질 수 있다 [3]. 6 가지의 CCLM 모드에는 CCLM 1 모드, MMLM (MMLM: Multi model LM) 모드 그리고 4 종류의 MFLM MFLM (Multi filter LM)으로 구성된다. 휘도 화소로부터 색차 화소값을 예측하기

¹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6-0-00572, 초고질감 미디어 서비스 실현을 위해 HEVC/3DA 대비 2 배 압축률 제공하는 5 세대 비디오/오디오 표준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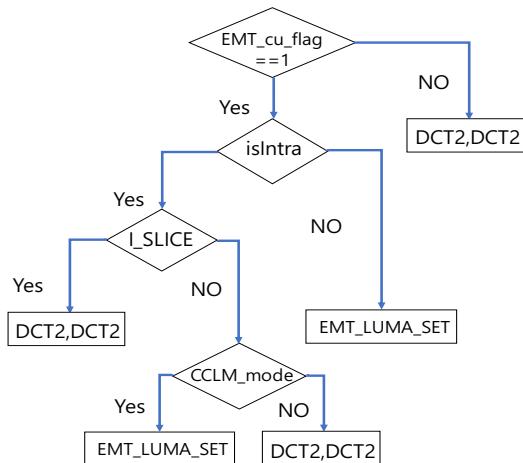


그림 1. 색차신호 변환에 적용한 실험방법.

위해 전체 CU 를 대표하여 하나의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CCLM1 모델이라면, MMLM에서는 두개의 선형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4 종류의 MFLM 모드들은 각각 색차 신호의 하향표본화(down sampling) 할 때 사용되는 필터로 구분된다. Cross component 란 휘도 신호와 색차신호 사이의 중복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연관성(correlation)을 추가로 제거하는 6 개의 CCLM 모드 중 한 개가 색차 예측 모드로 선택된 화면 내 예측 블록에서는 휘도 신호와 색차신호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휘도 신호의 다중변환을 사용할 때 다른 화면 내 예측 블록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화면 내 예측의 경우 AMT 는 화면 내 예측 모드에 기반하여 잔차신호의 특성을 통계로 얻은 것 이기 때문에, 채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HEVC 와는 달리 JEM 에서 달라진 기본 조건들이 있다. QTBT 블록 분할 방법이 적용됨과 동시에[3], 기존 HEVC 의 I-slice 와는 다르게, JEM 의 휘도 성분 Y 와 색차 성분 Cb, Cr 의 블록은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색차 채널의 CU 에서 휘도 채널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알맞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색차신호에 대한 별도의 적응형 다중변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였다.

첫번째로, 휘도 신호와 색차신호의 블록 분할 방법이 다른 I-slice 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같이 DCT2 가 색차신호에 적용된다. 휘도 신호와 색차신호의 블록 분할방법이 동일한 B, P-slice 에서는 휘도 신호에서 정해진 다중변환을 동일하게 색차신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화면 내 예측 블록에 있어서는, 색차신호의 화면 내 예측모드가 CCLM mode 6 개에 속할 때에만 휘도 성분의 다중변환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 1. 실험조건

실험시퀀스	(Cactus, ParkScene, Kimono)
QP	22,27,32,37
프레임 수	50 frame
부호화 조건	RA(random access)

표 2. 제안한 실험방법 결과

Sequences	EMT_Chroma BDBR (%) (proposed)		
	Y	U	V
Cactus	0.10	-2.00	-1.20
ParkScene	0.00	-0.80	-0.60
Kimono	0.00	-1.40	-1.10
Average	0.03	-1.40	-0.96

4. 실험결과분석

본 논문에서는 JEM7.2 에 있는 휘도 성분에만 적용되고 있는 AMT 를 화면 내/간 예측블록의 색차 신호 채널에도 적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특별히 화면 내 예측 블록에 있어서는, 색차신호의 화면 내 예측모드가 휘도성분과 색차성분의 연관성이 깊은 CCLM mode 6 개 중 하나의 모드가 선택되었을 때 휘도성분의 다중변환 (수평 및 수직변환 조합집합)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색차 성분 블록의 잔차 블록에서의 변환을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BDBR(%)측면에서 색차성분인 U, V 에서 각각 1.40%, 0.96%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에 I-Slice 에서 휘도 성분 Y 와 색차 성분 Cb, Cr 의 블록을 공유한다면 색차 성분 블록에서 더 높은 압축 효율을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휘도 신호 예측에만 적용되던 AMT 를 화면 내/간 예측 부호화 되는 색차신호에도 적용할 경우 색차 신호의 부호화 효율 향상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휘도성분을 제외한 두개의 색차 성분에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G. J. Sullivan, J. Ohm, W. J. Han, and T. Wiegand, "Overview of the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standard," *IEEE Trans.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 vol. 22, no. 12, Dec. 2012.
- [2] T. Ukuba and O. Nakagami, "On Adaptive Multiple Core Transform for Chroma," JVET-E0036, Jan. 2017.
- [3] Jian le Chen, "Algorithm Description of Joint Exploration Test Model 7 (JEM 7)," JVET-G1001, Jul. 2017.
- [4] J. Chen, V. Seregin, S. Lee, W. Han, J. Kim, B.M. Jeon, "CE6.a: Chroma intra prediction by reconstructed luma samples," *JCTVC-E266*, Geneva, Mar. 2011.
- [5] Frank Bossen, "Common test conditions and software reference configurations," *JCTVC-L1100*, Jan. 2013.
- [6] 박지윤, 전병우, "색차 채널을 위한 적응형 다중변환의 효과분석," 제 30 회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샵(IPIU), pp.1-2, 2018 02.07-09, 제주..